

四 사람들을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장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계시게 하고 하나는 모세를 계시게 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계시게 하리이다 하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가리우며 또 소리가 구름 속에서 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거늘 제자들이 듣고 이르러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 - 나와 저희를 만지시며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하시니 제자들이 능을 들으며 보매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오직 예수뿐이실려라 ○ 산에서 내려오실새 예수 - 분부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서기관이 어찌 엘리야가 먼저 온다 하였나이까 예수 -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 오직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접하였으니 인자도 또한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를 받으리라 하시니 ○ 제야 제자들이 예수 -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 ○ 무리에 계시느사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여러 번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 -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 ○ 요 네 아들을 데려오라 하고 예수 - 꾸짖으시니 사귀가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지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조용히 가로되 우리는 어찌이 사귀를 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 - 가라사대 너희 믿음의 적은 연고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치 있으면 이 산더러

三 명하되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 갈릴리에서 머물 때에 예수 - 제자더러 일러 가라사대 인자를 장차 사람의 손에 잡아주어 저희가 죽이매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전세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네 스승이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 -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한도 세상 임금이 누가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혹 외인에게냐 베드로 - 가로되 외인이다 예수 -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은 세를 면하라 ○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저리까게 할까 염려하노니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임을 열면 돈 일원울 얻은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더라

一八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예수 -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 그런고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크니라 ○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이니 ○ 오직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범죄케 하는 자는 차라리 큰 돌매를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 사람을 범죄케 함으로 이 세상이 양화를 받으리니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은 없을 수 없으나 남을 범죄케 하는 자는 양화를 받으리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나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 상하고 절며 영생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이 있어 영원한 불에 빠지는 것보다 좋으니라 ○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이 있어 영생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이 있어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좋으니